장성에 백종원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들어선다

지난 9월 설립 협약…옛 노인복지회관에 9월 개원 목표 행정절차 진행

음식 개발·인력 양성·창업 지원·전통시장 활성화 다방면의 성과 기대

장성군에 외식 산업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가 성공 비법을 전수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선다.

장성군에 따르면 (주)더본코리아와의 업무협약 가시화로 옛 장성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주)더본코리아 산하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설립된다.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 대표가 창업한 (주)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주)더본코리아의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공헌 활동을 이끄는 핵심 계열사다.

이번 장성센터 개원은 앞서 지난 9월 장성군과 (주)더본코리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옛 장성 노인복지회관(장성읍 문화로 110)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 위치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주)더본코리아 관계자와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센터 유치를 단계별로 준비해 왔다. 12월에는 백종원 대표가 장성을 방문해 센터 예정지와 황룡전통시장을 직접 답사하기도 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가 들어서면 장성군 음식문화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점을 갖게 된다.

장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음식 개발부터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성과가 기대된다.

장성군은 9월 센터 개원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 설계, 공사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이 황룡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장성 5대 맞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상승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종(왼쪽) 장성군수가 지난해 12월 장성을 방문한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에게 지역 상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흥 천연자원연구센터, 바이오에프디엔씨와 바이오 소재 연구 협약

아토피·탈모 치료 제품 개발 협력

장흥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융합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센터장 이학성)는 ㈜바이오에프디엔씨(대표이사 정대현·모상현)와 전남도 지역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두 기관은 천연물·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과 탈모를 개선하고, 모발 건강 기능식품 등의 소재를 개발한다.

이 밖에도 정보교류, 상호 위탁 연구, 산업화 연구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동활용,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주·상용화에도 힘을 모은다.

전남에 기반을 둔 ㈜바이오에프디엔씨는 바이오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피부 투과율이 증대된 재조합 단백질 생산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파이토케미컬 융합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 식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식물 줄기세포와 같은 핵심 소재들은 고활성이 요구되는 전문 화장품에 처방되고 있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남도 비교 우위 특산자원 260여 종을 연구하는 대표 기관이다.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학성 센터장은 "바이오에프디엔씨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남의 천연물과 펩타이드를 융합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연구·산업화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군민과의 대화' 내일부터 시작

2월1일까지 11개 읍면 순회

강진군이 2024년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강진군은 오는 24일부터 2월1일까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군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은 24일 옴천면 오전 10시, 병영면 오후 2시, 25일 작천면 오전 10시, 성전면 오후 2시, 29일에는 강진읍 오후 2시다.

30일 마량면 오전 10시, 대구면 오후 2시, 31일 칠량면 오전 10시, 군동면 오후 2시, 2월1일 신전면 오전 10시, 도암면 오후 2시다.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군의원을 포함해 읍면 기관·단체장, 농림축수산업 직능단체, 이장,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청년, 노인회, 개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1시간에 걸친 일정은 각 읍면별로 유공자 표창, 군정보고,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이어진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으로 읍면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공감과 지역 화합 도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올해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군민들의 적극 참여로 소득증대를 이루자"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의회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촉구

담양군의회가 22일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담양군의회는 "지역민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 통합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견인차 구실을 할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음달 7일까지 신청자 모집

화순군은 다음 달 7일까지 '2024년도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올해 4000만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농가에 비닐하우스 7동(2310㎡)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순지역 농협 등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기관 소속 농가이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농가 1곳당 330㎡ 규모의 내재해 형 비닐하우스 1동을 지원한다. 사업 단가는 ㎡당 2만5000원이다.

설치비의 70%를 화순군이 지원하고, 자부담 30% 비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2월7일까지 소재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화순군 농촌활력과 농산물마케팅팀(061-379-368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조기 착공 '시동'

혁신산단 인근 119만7000㎡ 규모

전담 조직 구성…보상·공사 동시 추진

나주시가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착공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의 핵심 거점인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한 가운데 더 이상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을 통해 나주의 첫 국가산단이 될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8일 시 청사를 방문한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에너지국가산단 조기 착공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에너지국가산단은 나주 혁신산단 인근에 약 36만평(119만7000㎡)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국가산단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산단 조성엔 총사업비 3081억원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양 기관장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산단 조기 착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현재 산단의 수요 대비 공급 가능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추가 산단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기 조성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전남도·나주시·LH 등이 함께 산단 조성사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며 "보상-공사-분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수미 본부장은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예정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남도와 나주시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왼쪽 두번째) 나주시장이 18일 시청사를 방문한 정수미(오른쪽 두번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사업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24시간 운영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후속조치

나주시가 22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난안전상황실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옆 사무실에 들어선다. 상황실에선 24시간 상시 전담 인력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시는 각종 사회·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정확한 초동 조치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나주시의 재난상황 관리는 일과시간엔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야간과 주말·공휴일엔 시청사 당직실에서 전담해왔다. 이 때문에 실시간 상황 파악 지연, 초동대처 미흡, 재난 대응 전문성 결여 등이 지적돼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기존 한계점을 보완하고 24시간 재난 발생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장성군, 모바일 건강관리 참여 주민 모집

장성군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24~60세 주민 가운데 혈압, 혈당, 복부비만, 중성지방 등 한 가지 이상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군민을 우선 선정한다.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병원 진단을 받은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 전 보건소를 방문해 혈액, 혈압, 체질량 검사와 건강상담을 받아야 한다. 참여를 원하면 내달 말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